

## 哲學과 自然性과의 關係

金桂淑

다만 漠然하게 哲學이라고 할 때에는, 그 眞意를 理解하려고 하면, 너무도 抽象的이고 迂遠하며, 또 너무도 廣汎하여, 것잡을 수 업는 것 갖트며, 그뿐만 아니라 難澁하기 無雙하여, 空中 樓閣과 갖튼 생각이 나기도 하여, 一種의 無用物에 不過하다는 생각이 업지 아니하다. 或은 哲學이란 것은 一種의 「概念詩」며, 「概念的 遊戲」라고 하여 非難을 하게된다. 그러나 「빈델만드」도 그 哲學概論에서, 哲人들이 取扱하는 問題는, 누구를 勿論하고 容易하게 理解하도록 通俗的으로 할 것이라고 하지만, 亦是 그와 갖치 함으로써 表現方式이 不足하게 된다던지, 싸라서 그 內容이 曖昧하게 된다던지, 觀念이 不明確하게 됴므로서, 學的 研究에 對한 缺陷을 招致하게 된다고도 하였다.

그럼으로 어느 程度까지, 더욱 廣汎한 範圍에 對하여, 또는 一般的 科學을 基礎로 한 「이데올로기-」인것 만큼 그 分野와 意味와 表現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그러면, 以上과 갖치 哲學에 對한 여러 가지 非難 아니, 甚至於 無用物이라고까지 하는데 對하여서는, 全然 意味와 理由가 업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全然 그런 것이 아니다. 웨그런냐 하면, 哲學으로 말하면 長久한 學的 探求의 歷史를 가졌스며, 그뿐만 아니라 純理論的 學問 即 「이데올로기-」인것만큼 어느 程度까지는 理解의 難澁과 不明이라던지 하는 여러 가지 非難 攻擊은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哲學이라고 하는 學問 그 自身이 벌써 언제던지 그와 갖튼 非難 攻擊을 받게 되고 잇기만 한냐하면, 꼭 그런것은 아니다. 換言하면, 以上과 갖치 哲學自身도 벌써 그러케 되엿다고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哲學을 알려고 하는 사람, 或은 哲學을 探求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責任이 잇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그 哲學이라고 하는 學問自身 內에 內包되어 잇는 非難性, 即 哲學은 웨 非難을 받게 되는냐 하는 것을 그 自體內에서 探求하여 볼려고 한다. 哲學이라고 하는 學問은 思索과 그 方法을 重要視하는 學問이다. 싸라서 思索과 그 方法에 는 概念이 絶對로 必要하게 된다. 그런 故로 「概念詩」 或은 「概念的 遊戲」이라고 非難을 받게 되는 것도, 그 原因이 여기에 잇다고

하겠다. 그런故로 「칸트」는 哲學을 「概念으로 된 科學」이라고 하고, 「쇼팽하우어-」는, 哲學을 「概念中の 科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갓치 哲學 等과 갓치 「이데올로로지」는 概念하고는 分離할 수 업는 것이다. 더욱 哲學에서는, 人生觀을 論하며, 世界觀을 論하며, 眞理의 妥當性에 對하여 陳述함에 잇서서, 初期的 即 學的 探求가 아즉 未熟한 時期에 잇서서는 臆說이 根本이되고 잇섯지만, 적어도 그와 갓치 曖昧한 範圍를 脫出하며, 形而上學的 要求만을 滿足식킬려고 하는 欲求만으로서는 不足하여, 적어도 學的으로, 그것을 批判할려고하는데 잇서서는 抽象的이지만 거기에는 엇더한 論理的 關係가 確立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勿論 여기에서 論理的이라고 함에 잇서서는 다만 形式論理로만을 論함이 아니다. 「헤-겔」이 「하이델뵐[하이델베르그]」 大學校壇에 出現할 썩에 「眞理에 對한 熱情」이 再發하였다고 볼썩에, 거기에는 「헤-겔」의 모든 것을 批判함에 더욱 「헤-겔」의 方法으로 事物의 根底에 潛한 秘密을 露出식킬려고 하는 그 熱情과 眞意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가 難解로 有名하다고 하는 非難을 맞게 됨은 웬일인가. 여기에 잇서서는 「헤-겔」哲學을 根本的으로 仔細하게 明瞭하게 論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許諾되지 못함은 遺憾으로 생각하는 배다.

大體로 「헤-겔」은 事物의 根底를 詳細하게 分析하였스며, 썩아서 그 結果로 말하면, 事物을 그대로만 觀察하지 아니하고, 他物과 對立식켜서 觀察하였스며, 그러면 그와 갓치 對立식킴으로써만 滿足하였느냐 하면, 그러치 아니하고 그것은 進展와 變化性을 가졌기 썩문에, 다시 다른 形態로 變遷한다는 것을 力說하였다. 이것이 「헤-겔」哲學에서 運動과 發展을 前提함이며, 썩아서그것은 辨證法的으로 發展한다고 하는 「헤-겔」哲學에 잇서서의 特免이다. 여기에서 「運動」이라고 하는 「概念」이 다시 問題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運動」이라고 하는 概念은 엇더케 하여 導入되었느냐 하는데까지 일으게 되는것이다. 이와 갓치 概念的 形成에 잇서서, 難解의 非難을 맞게 되는 것은 高級的으로 發達한 「이데올로로지-」인 所以도 잇겠지만, 거기에는 本問題하고 直接 關聯되는 重要한 問題가 潛在되어 있다.

本問題에 對한 것은, 本來 哲學의 歷史的 發展階級으로 보아서, 그것을 詳述할 것이지만, 爲先 「헤-겔」哲學에 對하여 論할려고 한다. 「헤-겔」이 「眞理에 對한 熱情」으로써 始作한 그 心中에는, 事物을 本質的으로 發展的으로 觀察 할려고 하는 熱情이 넘친 것이다. 事物을 觀察함으로써, 그 結果로 「헤-겔」哲學이 誕生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全部가 다만 「概念詩」或은 「概念的 遊戲」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헤-겔」이 雖是 現實의 事物을 觀察하였다고 하며, 그것으로서 即 그것이 土臺가 되어서 「헤-겔」哲

學이 出現하였다고 하지만「헤-겔」은 한 편에 잇서서, 卽 「헤-겔」의 當時에  
 는 獨逸에는, 「칸트」 以來의 獨逸 理想主義 哲學이 歷史的 大役割을 演出하  
 고 잇섯으며, 그 絶頂에 達하려고 하는 새인 만큰 「헤-겔」은 할 수 업시 아  
 니 그새로 말하면 當然하게 그 後繼者가 된것이다. 그런 故로, 우리는 「헤-  
 겔」 哲學에 잇서서는, 이와 갓튼 것을 觀察하지 아니하고서는 「헤-겔」 哲學을  
 「批判」할 수 업는 것이다. 以上과 갓치 하여 「헤-겔」 哲學은 獨逸 理想主義哲  
 學의 絶頂에 達하였으며, 그것을 代表하였다. 이와 갓튼 것은 哲學을 觀察하  
 며, 더욱 批判 하려고 함에는, 그것의「무엇」을 論述하며 批判함에는, 그 形態  
 의 形成過程을 잘 探知할 必要가 잇는 것이다. 卽 「엇더케 해야된」 것을 觀察  
 함으로써, 그 「무엇」을 알 것이다. 이와 갓치 「헤-겔」을 觀察함이 「헤-겔」 哲  
 學에서, 「산」 것을 찾는 것이 되며, 그 「산」 것을 살게 하는 것이 참으로 眞理  
 에 對한 熱情이다. 그 結果로 우리는 「헤-겔」이 그 哲學的 體系로 보아서는,  
 獨逸 理想主義的 哲學을 綜合한 感이 잇다고 하지만, 그 內面에 잇서서 「헤-  
 겔」 哲學의 特有的 獨特한 것으로 말하면, 「헤-겔」이 現實的 事物을 明瞭  
 하게 細密하게 觀察한 그 觀察의 깊은 힘에 잇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갓튼 特  
 點을 볼새에, 더욱 그 堅固한 土臺를 形成시키며, 그 獨特한 方法을 研究하  
 여 내며, 아니 그런 方法이 나오게 된 것으로 말하면, 專혀 그와 갓튼 現實  
 的 事物에 對한 觀察 卽 다시 말하면 「헤-겔」의 深幽한 哲學속에는, 勿論 그  
 體系的 全体는 支配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지만, 그 第一 主要한 精神으로 말  
 하면, 本 論文에 일은 바 「自然性」이 그 重任을 등지고 잇다고 하겠다. 그런  
 故로 「헤-겔」 哲學으로 말하면, 그 重要的 制動點은, 우리가 그 哲學을 다만  
 「그대로만」 觀察할 새에는, 「헤-겔」의 所謂 「精神」에 잇는것 갓치 보이지만,  
 그것의 原因을 차즈며, 그의 形成의 過程을 알며, 쯤는 他者와 比較하여 觀  
 察하며, 더욱 統一的 觀察을 할 새에는, 그것은 事實에 잇서서 「自然性」에 잇  
 다고 볼 수 박게 업다.

이와 갓튼 것 을우리가 「헤-겔」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저 有名한 「칸트」  
 에서도 볼 수 가 잇는 것이다. 「데칼트」 以來의 物心에 對한 論爭이 「칸트」에  
 와서 一時는 解決된 것 갓치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難解는 勿論  
 이오, 疑問과 矛盾을 包括하고 잇는 것이다. 勿論 「칸트」 哲學의 偉大性을 無  
 視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히 들어가서 「칸트」 哲學에 對한 그 偉大  
 性이 어대 잇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칸트」 哲學이 後世에까지, 어느程  
 度까지 큰 힘을 주고 잇는 것은 웬일인가 할 새에, 우리는 더 一層 우리의  
 압길에 對한 光明을 볼 것이다. 卽 우리는 알무로써 超越할 수가 잇다. 「칸  
 트」가 先驗哲學을 確立함에 잇서서, 純粹理性을 制限하고 先驗的 方法을 論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主觀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칸트」는 언제든지 그것이 主觀으로만 잇는것이 아니고, 外界에 關係되는 것을 明白하게 알게된다. 그와 갖치 主觀的 形式이 外界에 作用함에는 原則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範疇에 잇서서도, 그 起源은 悟性 判斷의 四個의 論理的 機能에 求함이라든지 하는 것을 볼 때에, 萬一에 그것만으로써 觀察하면 簡單하며 別問題인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理想主義哲學이라고는 하지만, 그 成立에 잇서서라든지, 그 重要點을 制動하는 것은 「칸트」의 探求한「自然性」에 依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칸트」가 그 當時에 問題 삼은 것은, 亦是 純粹自然科學에 對한 成立의 可能性이었다. 그만큼 自然性에 對한 關心은 컸으나, 그것이 亦是 歷史的 影響을 맞아서, 더욱 그 當時에는 自然科學도 形而上學的으로만 問題된 結果로 因하여 그것이 갖튼 偉大性을 가지면서도 큰 矛盾을 가지게 된것은, 今日에 와서 볼 때에는 얼마나 遺憾인지 알지 못한 것이다. 現實的 客觀을 볼 때에, 언제든지 그 不純性만 보았고, 그 具體的, 現實的, 客觀的, 反映이라고 하는 그 基礎의 形成을 無視하였다. 問題가 이까지 오면 存在와 價値의 問題, 或은 實在와 論理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本 論文를 論함에 잇서서, 適宜한 程度로 簡單하게 論하면, 存在와 價値 全然 同一視하는 것이 아니나, 存在와 價値 或은 實在와 論理를 論함에 잇서서, 그것을「即 自的」으로論 할 때와, 그것을「對自的」으로 論할 때가 다른 것이다. 價値나 論理를 即自的으로 論할 때에는, 勿論 價値나 或은 論理으로써 意味를 가진것이 있지만, 그것을 對 自的으로 存在와 關聯시켜서 論할 때에는, 우리는 兩者間에 잇는 關係를 無視하여서는 아니된다. 學的으로 記述하며, 그것을 體系的으로 總括함에 잇서서는, 前後의 順序如何는 別問題로 하고라도, 即自的으로 觀察한 것을, 그것을 언제든지 더욱 根本的 理論上으로, 即 自的으로만 論하며, 또는 綜合的 即 다른 形態로 變換한 것을 無視할 때에는, 그것은 根本的 誤謬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即 在來의 形式 論理로써만 觀察하고, 萬一에 그것을 即自的으로 或은 對 自的으로 더욱 그것의 統一體를 忘却할 때에 立場의 相異와 根本的 誤謬를 犯하게 되 는것이다. 以上에 말한 바 過謬를 免할려고 함에 잇서서는, 그 根本的 制動의 「포인트」를 가진, 現實的, 具體的, 事物의 觀察 即 自然性에 依한 「아우푸헤-벤」을 통한 眞理에 對한 熱情이 잇서야만 한다.

이와 갖치 自然性과의 關係를 論함에 잇서서, 「칸트」나 「헤-겔」에 限할 것이 아니라, 古代부터 今日에 일르기까지의 歷史를 볼 때에, 그 根本的 契機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이와 갖치 論함으로써, 哲學

그 自體의 存在와 意味를 無視하며, 그것을 疑心할려고 하는, 卽 哲學 自體에 對한 懷疑를 論함은 아니다. 이룬데 對한 것을 誤解하기 쉬우며 萬一에 誤解한다고 하면, 本 論文의 意義의 那邊에 在한 眞意를 理解못 할 것이다. 宇宙의 發展과 人類의 發展, 卞라서 이 發展이 人間의 智力에 反映되는데 對한 것을 正確하게 表現함에 잇서서, 그것을 完全하게 하는 思索과 그 方法의 探求에 잇서서는, 自然性에 對한 「아우푸헤-벤」을 통한 것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갖치 함으로써, 한 哲學이면 그 哲學을 完全히 理解할 수 잇스며, 또 그것을 完全히 理解함으로써, 그것을 超越할 수 잇다. 卽「批判」이라고하는 眞義가 생기는 것이며, 事實에 잇서서의 哲學的 理解, 다시 말하면 「필로소피-렌」을 할 수 잇다는 것이다. 여기서 概念으로써 形成된 것이지만, 그 概念의 眞理를 明瞭하게 理解하게 되는 것이며, 卞라서 「概念詩」或은 「概念的遊戯」의 非難은 自然히 消滅할 것이다. 그런데 以上에서는 다만 廣義로써의 自然性이라고 하였지만, 近代에 와서는 自然性을 學的으로 構成한 自然科學이 顯著하게 發達된 것인 만곤, 哲學과 自然科學의 關係가 더욱 密接하게 되었다. 自然에 對한 것을 學的으로 探求하게 됨을 卞라서, 더욱 그 探求性에 深刻하여 가면 갈수록, 自然性과의 關係가 明瞭하게 되며, 明確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갖치 함을 卞라서, 在來에 잇서서는 다만 因果關係를 論함에 잇서서도, 時間的 或은 空間的 偶然性으로 論하게 되었지만, 具體的 探求가 進展하며, 卞라서 事物의 統一的 全體를 觀察하게 됨으로써, 그의 必然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 論한 結果로, 或은 自然科學과 哲學을 同一視한다고도 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誤解에도 너무도 甚한 誤解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在來에 생각하여 내려오던 哲學에 對한 權威主權性を 그대로 主張하기는 십지 안타. 在來는 그의 關係를 仔細히 論하지 아니하고, 卽 어대에서 自然科學과 「이데올로기」이 더욱 哲學과 區別되며, 또 엇더케 相互關係 되는지 하는 것의 方法的 誤謬를 犯하기 卞문에 그와 갖치 되었스며, 다만 卽 自的 觀察法으로 因하여 絶對的 主權性を 主張한 것이다.

以上에 論한 바와 갖치, 哲學과 自然科學의 關係를 論하면, 哲學上으로 出現한 機械論이라던지, 或은 所謂 唯物論을 代表할 것이다. 機械論에 잇서서는, 그것이 全體的 世界觀을 代表하는 것과, 또는 그러치 아니하고, 그것을 다만 外界의 物質現象에만 限하는 것과의 二種의 區別이 잇다 前者로 말하면, 古代에 잇서서 아즉 自然科學이라던지 哲學이 分科되지 아니한 混渾한 一團이 된새에 잇섯다. 그러나 漸次로 그것의 區別이 生하게 됨을 卞라서, 이번에는 自然科學的 研究와 哲學的 研究와는 全部關係업는 別個의 兩者가

되고 말았다. 그와 갖치 兩者의 相異되는 點과 相關되는 點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中世紀 갖튼 世에는, 한 便이 다른 한 便을 專制的으로 支配하고 있섯으며, 그 眞理를 차증이 업시 壓倒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던지 繼續하지 못하게 되었다. 卽 近世에 와서는 只今까지 壓倒를 맞던 自然科學이 다시 새 氣焰을 吐하며, 그의 本質의 探求를 要求하게 됨을 卞라서, 自然科學은 漸々 새 氣運으로 向하게 되었다. 그림을 卞라서 自然科學과 哲學은 다시 相關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제는 前과 反對로 自然科學의 努力이 強大함을 卞라서 哲學은 自然 그 影響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인제는 엇던 現象을 現出하였느냐 하면, 哲學에 自然科學의 思索이 各 部分에 侵入하였다. 그런데 이세에 잇서서, 問題된 것은 自然科學의 思索이 哲學에 直接 侵하기는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大略 두 가지 傾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한 가지는 哲學的 思索에 잇서서, 物質的 現象과 精神的 現象은 二大 分野로 分離식키게 된것이다. 이것이 前述한 中 卽機械論中の 後者에 屬하는 것이다. 哲學 中에 自然科學的 思索을 輸入은 식켰스나, 그것을 卽 自的으로 探求하는 方法과, 對 自的으로 探求하는 方法, 或은 統一的 探求法의 不足으로 因하여, 다만 「그대로」만 觀察하게 되기 卞라서, 亦是 自然科學은 自然的 物質現象에만, 그리고 精神現象에는 目的論이 適用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가치 하여서는 哲學的世界觀에 矛盾이 生하며 說明의 不徹底한 點이 잇기 卞라서, 自然이 兩者의 矛盾을 排除하려고 하는 努力이 發生하게 되었다. 그 結果가 「마하」 등의 經驗論的 批判主義에 到達한 것이다. 그러나 「마하」에 잇서서는, 亦是 아즉 全宇宙, 宇宙의 發展과 人類의 發展 따라서 이 發展이 人間의 智力에 反映되는데 對한 것을 正確하게 表象하려면, 生成과 過程, 進歩的 變化와 退步的 變化와의 一般的 相互作用을 언제던지 考慮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데 對하여서는, 너무도 不足하였다. 勿論 「마하」에 잇서서는, 自然科學的 思索과 哲學的 思索을 全然 分離식킴을 非難하였다고 볼 수 잇지만, 亦是 「마하」는 兩者間的 區分 卽 그 獨立性和, 다른 便에 잇서서는 兩者間的相互作用을 無視하였다. 이것이 「마하」 등에 잇서서의 缺點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와갖치 偏視만한 結果 「마하」의 努力은 엇더케 되었느냐하면, 自然科學을 形而上學的으로만 研究한 結果로 因하여, 其間的 連絡關係을 알지 못하였다. 卞라서 그 結果로는 一種의 懷疑에 不過한 點도 업지 아니하며, 또 다른 便으로는 信仰主義的 解決에 不過하였다. 이와갓튼 것은 別서 以上에서 累次論 하였스며, 卞라서 그의 가지고 잇는 矛盾을 暴露식켰다.

「마하」主義 卽 經驗批判論이 自然科學과 얼마나 密接한 關係에 잇는 것을, 以上에 論하는 同時에 또 그 矛盾을 論하였다. 自然科學 全般에 잇서서

도 그러하지만, 더욱 物理學에 잇서서는, 大發見의 偉大性으로 因하여 舊理論은 破壞를 當하는 境遇에 處하였다. 그러나 그 結果는 一種의 相對的理論에서만 그 眞理를 證明하기 爲문에, 結局에 잇서서는 脫線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客觀的 入丈을 取하는 形式이 되지만, 그와 갓치 辨證法的 見解에 無知하기 爲문에 結果는 그 正當한 進路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希臘 以來 哲學을 一觀 할 새에, 더욱 各 哲學者에 對한 것을 一히 그 眞理에 對한 態度 或은 그 制動點을 決定하는 契機로 말하면 「自然性」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古代에 잇서서는 「푸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에서 더욱 그 顯著한 것을 볼 수 잇스며, 近世에 잇서서는 「베-콘」「데칼트」가 新哲學에 對한 새 方法을 創始한 사람이다. 그와 갓치 劃時代的 方法을 볼 새에는, 以上의 論點에 對한 意味를 察知할 수 있다. 「데보-린」은 「自然科學이 獲得한 結果를 土臺로 하고, 認識一般의 原則的 基礎를 確立식킴을 目的으로 하고, 科學的 探究方法의 基礎的 前提를 研究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 課題를 完全히 實行한 最初의 哲學者는 「베-콘」이였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經驗이 問題되는 것이지만, 以上에서 論한 바와 갓치 經驗을 無力하게 固定한 것으로서만 觀察할 새에는, 그 結果가 「마하」法의 缺陷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經驗이란 것은 認識原則으로 棄揚되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經驗은 客觀的 世界의 反映인 것을 알며, 따라서 그럼으로써, 眞實한 認識을 即 客觀的 世界의 具體的 眞理를 確得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런故로, 그새에는 비로소 哲學에 對한 非難 더욱 「概念詩」 或은 「概念的 遊戯」에 對한 攻擊의 意義가 那邊에 잇는가를 明確히 把握할 수 잇스며, 그것이 「自然性」과 얼마나 한 關係에 잇는가를 察知할 것이다.

이와 갓치 哲學과 自然性과의 關係를 알무로써, 우리는 自然法則을 使用함으로써, 自然을 支配할 수 있다. 그 結果로써, 經驗을 土臺로 하지만, 그것을 棄揚함으로써, 우리는 普遍的, 一般的, 法則理論에 到達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自然性에 關心함으로써, 그것에만 固着하는 것이 아니라, 即 機械論이나 「마하」式 經驗批判論에서만 헤매지 아니하고, 그것을 克服할 수 잇는 것이다. 이것을 指示하는 것이 思索方法인 辨證法의 힘이다. 그럼으로 思辨的 哲學的 論法이 概念이나, 言語만을 分析함으로써 眞理를 發見하려고 함에 反하여, 吾人은 그것의 힘으로 因하여 自然 그것을 쪼는 具體的 實在를 分析하며, 따라서 自然에 附帶한 合理性을 發見함에 있다. 이것이 客觀的 眞理와의 符合에 있다. 그러나 그 概念은, 確實한 客觀的 現實性을 表象하는 것인 것만 쪼 吾人은 矛盾을 發見할 수 없다. 一般的 原則은 具體的 事實에서 抽出하는 것이며, 判斷 中에 使用되는 概念이야말로, 現實性을 內包한 關係的 眞理

를 表象하며, 確證하는 戒器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實踐과 理論이 活躍할 그 領域을 確得하게 된 것이다.